한국소비자원



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는 거 알아?





한국소비자원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 성분 중**
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은**
해당 성분명으로 표시하도록 개정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전성분]	[전성분]
향료	향료,시트랄

(성분명 표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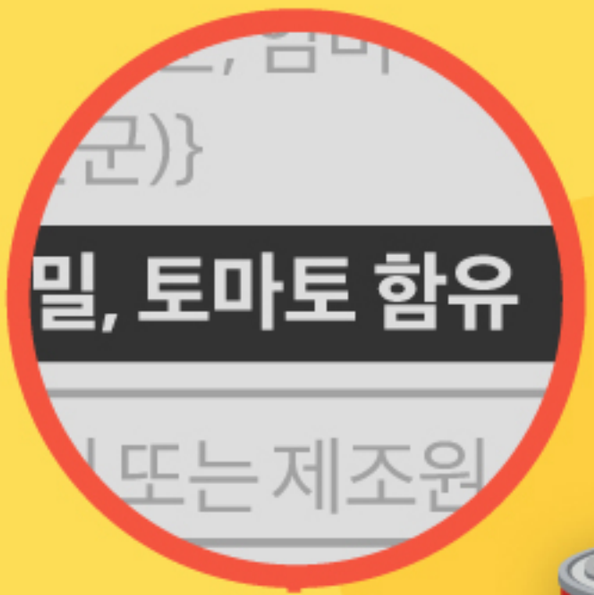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www.cis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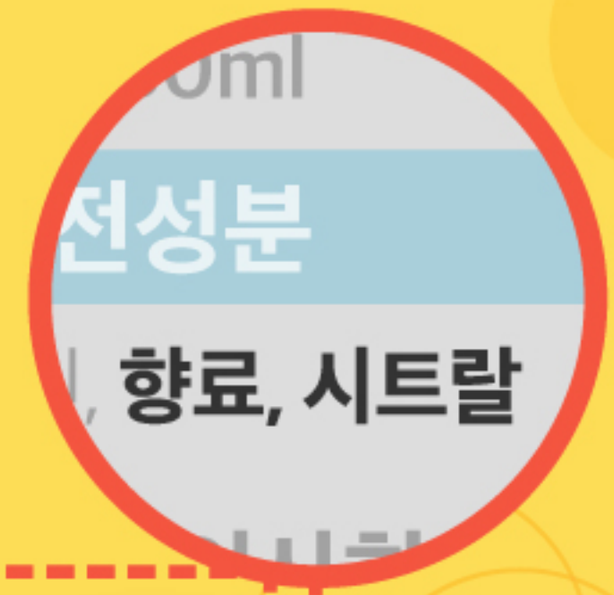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



향료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는 왜 하나요?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 시 도움을 주기 위한 안전 정보입니다.









식품 표기 예시

화장품 표기 예시

한국소비자원



표시되는 성분들이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나요?

아니요. 표시되는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유발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은 피부에 해로운가요?

알레르기 발생 빈도가 높은 땅콩, 우유, 복숭아가
해로운 음식이 아닌 것처럼

알레르기 유발 성분 자체는
해롭거나 피해야 하는 성분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사용 후 트러블이 생기면 알레르기를 의심해야 하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화장품 트러블은 피부 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접촉성 피부염으로

증상이 경미한 경우 접촉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용을 중단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사용 전 알레르기가 일어날지 미리 알 수는 없나요?

사용 전 팔 안쪽·귀 뒤 등

피부의 부드러운 부분에 적당량을 바르고 48시간 이상 테스트해 보세요.



또는, 병원을 방문하여 보다 전문적인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표시 정보

바르게 알고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본 콘텐츠는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가
공동 제작한 소비자 안전정보입니다.